

# 자본주의적 생산과 소비의 병리현상으로서의 물화

정태창\*

**초록** 물화(Verdinglichung)는 독일 사회철학의 전통에서 근대 이후의 자본주의 사회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병리현상의 핵심을 포착하는 개념으로 이해되어 왔다. 하지만 물화 개념에 대한 재정식화가 도구적 이성 비판의 계기를 중심으로 전개되면서 자본주의 사회의 병리현상에 대한 비판이라는 물화 비판의 본래의 취지는 퇴색된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 의식에 따라 물화에 대한 그동안의 논의에서 중심을 차지해 온 도구적 이성 비판과 결별하고 물화 개념을 새로운 토대 위에서 재정식화하고자 한다. 본 논문의 목표는 물화 개념과 '경제적인 것' 사이의 일차적인 연관 관계를 복원함으로써 근대 이후의 자본주의 사회의 병리현상에 대한 비판이라는 본래의 취지를 되살려내는 것이다. 이러한 작업은 마르크스의 정치 경제학 비판의 문제 의식을 계승하면서 그것을 오늘날의 사회 비판의 조건에 맞게 확장함으로써 물화 비판의 주제 영역을 자본주의적 생산과 소비로부터 발생하는 병리현상으로 한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주제어** 물화, 도구적 이성, 정치 경제학 비판, 개인 정체성

## 1. 들어가는 글

물화(Verdinglichung)는 독일 사회철학의 전통에서 근대 이후의 자본주의 사회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병리현상의 핵심을 포착하는 개념으로 이해되어 왔다. 이 개념을 처음으로 정식화한 루카치에 따르면 물화의 토

---

\* 공주대학교 교양학부 조교수

대를 이루고 있는 상품물신주의(Warenfetischismus)는 상품형식이 모든 삶의 표현(Lebensäußerungen)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회, 상품형식이 사회 전체의 지배형식을 이루는 사회에서만 등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근대 자본주의의 고유한 문제로 이해되어야 한다.<sup>1</sup> 아도르노와 호르크하이머는 물화에 의한 병리 현상이 심각하게 나타나는 오늘날의 자본주의 사회, 정신이 완전히 물화되고 경제적 과정들의 내적 논리가 사회의 모든 것을 절대적으로 통제하는 사회를 ‘관리되는 세계’(Verwaltete Welt)라는 개념을 통해 나타낸 바 있다.<sup>2</sup> 하버마스가 체계/생활 세계 2단계 사회 이론에 기초하여 재정식화한 ‘생활세계의 식민지화’(Kolonialisierung der Lebenswelt)로서의 물화 개념이나, 호네테가 인정 이론에 기초하여 재정식화한 ‘인정망각’(Anerkennungsvergessenheit)으로서의 물화 개념 또한 부분적으로 자본주의적 생산과 소비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병리현상들을 겨냥한다.<sup>3</sup> 이러한 의미에서 물화 비판은 마르크스의 정치 경제학 비판에 기초해 있거나, 혹은 그에 담겨 있는 문제 의식의 핵심을 계승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비판 이론의 1세대에서 3세대에 걸친 물화 개념의 재정식화 과정에서 정치 경제학 비판의 계기는 주변부로 밀려나고, 물화 개념과 ‘경제적인 것’ 일반의 일차적인 연관 관계 또한 크게 약화되는데, 그 원인은 이 개념이 사회 비판의 토대로서의 이성 비판이라는 기본 구도에 따라 파악되어 왔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sup>4</sup>

루카치의 물화 개념 안에는 마르크스에서 연원하는 정치 경제학 비판의 계기와 베버에서 연원하는 도구적 이성의 비판의 계기가 공존하는데, 루

1 G. Lukács (1977), *Geschichte und Klassenbewußtsein*, Luchterhand, p. 257 참조.

2 관리되는 세계의 개념에 대해서는 M. Horkheimer (1985), “Verwaltete Welt,” *Max Horkheimer Gesammelte Schriften. Band 7*, p. 377 참조.

3 이들의 물화 개념에 대해서는 J. Habermas (1981), *Theorie des kommunikativen Handelns, Band 2*, Suhrkamp, p. 293; A. Honneth (2005), *Verdinglichung*, Suhrkamp, p. 66 참조.

4 이에 대한 상세한 논의로는 정태창(2022), 「좋은 삶의 형식적 개념에 기초한 ‘물화(Verdinglichung)’의 재정식화」, 『철학사상』, 제85권, pp. 9-13 참조.

카치는 전자를 후자에 종속시키는 방식으로 양자를 결합한다.<sup>5</sup> 정치 경제학 비판이 폭로한 바 있는 자본주의 사회의 주요한 병리현상들의 원인은 도구적 이성에 기초한 근대 이후의 합리화 과정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물화에 대한 이후의 논의는 물화하는 힘의 원천으로서 도구적 이성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의 문제를 중심으로 전개된다. 아도르노와 호르크하이머는 루카치의 논의를 이어받아 총체적 이성 비판으로 나아간다.<sup>6</sup> 이들에 따르면 물화의 근본 원인은 이성 자체에, 그리고 그에 기초하여 성립하는 주관-객관의 관계에 있으며, 근대 이후의 자본주의 사회의 병리현상은 이로부터 기인하는 하나의 역사적 현상일 뿐이다. 이에 따라 이들의 물화 비판은 근대 이후의 자본주의 사회라는 특정한 역사적 현실에 대한 사회 비판보다는 일종의 역사철학에 기초한 문명 비판 혹은 이성 비판의 성격을 강하게 갖게 된다. 하버마스에 의한 물화 개념의 재정식화 또한 기능주의적 이성 비판을 중심으로 전개된다.<sup>7</sup> 그의 생활세계의 식민지화 개념은 자본주의 사회의 경제 체계로부터 발생하는 병리현상을 주체화할 수 있기는 하지만, 경제 체계의 명령에 의한 생활세계의 소통(Kommunikation)의 왜곡이라는 측면에서만 다루기 때문에 ‘경제적인 것’의 병리현상에 대한 사태적으로 심화된 논의로 나아가지 못하고 이성 비판의 한계 안에 머무른다. 호네프의 경우 그의 인정망각은 인정(Anerkennen)의 인지(Erkennen)에 대한 우선성 논제에 따라 개별 주체가 ‘세계’, 즉 주관세계, 사회세계, 객관세계에 대해 취할 수 있는 태도(Einstellung) 혹은 자세(Haltung)의 문제로 이해된다는 점에서 사회 비판과의 연관성을 많은 부분 상실하고 역사적·사회

5 이 점과 관련해서는 Honneth (2005), pp. 21-22 참조.

6 이에 대한 논의로는 J. Habermas (1986), *Der philosophische Diskurs der Moderne*, Suhrkamp, pp. 153-157; 정태창(2013), 「아도르노 철학에서의 이성의 파괴」, 『철학사상』 제40권, pp. 178-189 참조.

7 도구적 이성 비판과 기능주의적 이성 비판의 차이점에 대한 논의로는 강병호(2021), 「하버마스: 기능주의적 이성 비판과 의사소통적 이성 옹호」, 철학아카데미, 『이성과 반이성의 계보학』, 동녘, pp. 176-180 참조.

적 맥락과 무관하게 적용될 수 있는 일종의 유사-도덕 개념의 성격을 갖는다. 그 결과 물화에 대한 그의 논의는 인정망각이 오늘날의 자본주의 사회 질서와 구체적으로 어떻게 연관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결여하게 된다.<sup>8</sup>

사회 비판의 토대로서의 이성 비판이라는 기본 구도는 물화 개념을 되살리려는 지금까지의 시도들이 만족스러운 결과를 내지 못한 원인으로 작용해 온 것으로 보인다. 이성 자체를 물화하는 힘으로 보고 비이성적인 것을 대안으로 제시하거나(아도르노, 호르크하이머), 도구적 이성보다 더 포괄적인 이성을 대안으로 제시하거나(하버마스), 이성적인 것을 비이성적인 것을 통해 제한하는(호네프) 등의 도구적 이성 비판의 작업이 사회 비판에 기여하는 바가 무엇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다만 확실한 것은 이러한 작업이 근대 이후의 자본주의 사회의 병리현상에 대한 비판이라는 물화 비판의 본래의 취지를 사실상 퇴색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이다.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 의식에 따라 물화에 대한 그동안의 논의에서 중심을 차지해 온 도구적 이성 비판과 결별하고 물화 개념을 새로운 토대 위에서 재정식화하려는 기획의 두 번째 부분을 이루고 있다.<sup>9</sup> 이 논문의 목표는 물화 개념과 ‘경제적인 것’ 사이의 일차적인 연관 관계를 복원함으로써 근대 이후의 자본주의 사회의 병리현상에 대한 비판이라는 본래의 취지를

8 이 점과 관련해서는 문성훈(2007), 「물화(Verdinglichung)와 인정 망각」, 『해석학연구』 제20권, pp. 312; 서도식(2010), 「사물화 비판의 두 모델: 인지 모델과 인정 모델」, 『시대와철학』 제21권 제2호, p. 227 참조.

9 이러한 기획의 첫 번째 부분을 이루고 있는 선행 논문에서는 다음의 두 가지 작업이 수행되었다. 첫째, 물화 개념의 (재)정식화 과정에서 일관되게 관철되어 온 사회 비판의 토대로서의 이성 비판이라는 기본 구도가 물화 비판의 규범적 기초를 불분명하게 만든 근본 원인이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먼저 도구적 이성 비판과 결별할 필요가 있음을 보였다. 둘째, 호네프가 제시한 바 있는 좋은 삶의 형식적 개념, 즉 ‘인륜성’(Sittlichkeit)을 물화 비판의 규범적 기초로 정립하고, 이와 관련되어 있는 두 가지 근본 물음, 즉 1) 물화는 왜 정의의 문제가 아니라 좋은 삶의 문제로 이해되어야 하는가, 2) 물화 비판은 왜 좋은 삶의 실질적 개념이 아닌 형식적 개념을 규범적 기초로 삼아야 하는가에 대한 답변을 제시하였다. 이와 관련해서는 정태창(2022) 참조.

되살려내는 것이다. 이러한 작업은 마르크스의 정치 경제학 비판의 문제 의식을 계승하면서 그것을 오늘날의 사회 비판의 조건에 맞게 확장함으로써 물화 비판의 주제 영역을 자본주의적 생산과 소비로부터 발생하는 병리현상으로 한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본 논문은 이러한 기획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전개된다. 2장에서는 물화 비판의 주제 영역을 ‘경제적인 것’으로 한정하고, 이에 대한 예상되는 반론을 검토한다. 이어지는 3장에서는 물화 비판의 주제 영역을 자본주의적 생산과 소비로부터 발생하는 병리현상으로 한정한다. 이러한 작업은 정치 경제학 비판의 문제 의식을 기존의 생산 패러다임에서 생산-소비 패러다임으로 확장하고, 자본주의적 생산과 소비가 특정한 형태의 개인을 만들어 낸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마지막으로 4장에서는 본 기획의 2단계 작업에 의해 재정식화된 물화 개념의 핵심을 ‘상호주관’과 ‘객관’의 물화, 그리고 ‘주관’의 물화라는 두 가지 측면을 중심으로 하여 제시한다.

## 2. 물화 비판의 주제 영역으로서의 ‘경제적인 것’

### 2.1. 물화 개념의 두 가지 계기 사이의 모순

루카치는 「물화와 프롤레타리아의 의식」(1923)이라는 논문에서 자본주의 사회의 상품형식의 물신성(Fetischchrakter)에 대한 마르크스의 정치 경제학 분석에 계산가능성을 핵심으로 하는 베버의 목적합리성에 대한 논의를 결합시킴으로써 물화 개념을 주조해 낸다. 여기서는 루카치가 물화 개념의 이러한 두 가지 계기, 즉 정치 경제학 비판의 계기와 도구적 이성 비판의 계기를 결합시키는 방식을 분석함으로써 그의 물화 개념이 갖는 문제점을 드러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루카치는 사회적 병리 현상으로서의 물화를 마르크스의 정치 경제학 비판에 기초하여 정식화한다. 루카치에 따르면 물화는 근대 이후의 자본주의 사회, 즉 상품형식이 사회 전체의 지배 형식으로 발전하여 상품이 사회적 존재 전체의 보편적인 범주로 자리잡은 사회에서만 나타날 수 있는 문제로서,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사물성(Dinghaftigkeit)이라고 하는 유형적 대상성(gespenstige Gegenständlichkeit)을 갖게 되는 것을 말한다.<sup>10</sup> 이때 ‘모든 것’이 물화된다는 것은 다음의 3가지를 의미한다.<sup>11</sup> ① ‘객관 세계’의 물화. 욕구 충족을 위한 모든 대상이 상품이 되는 것. ② ‘사회 세계’의 물화. 모든 인간 관계가 상품의 대상성 형식에 굴복하는 것. ③ ‘주관 세계’의 물화. 의식의 속성이나 능력들이 외부세계의 대상들과 마찬가지로 인간이 ‘소유’할 수 있고 ‘판매’할 수도 있는 사물로 현상하는 것. 루카치에 따르면 물화는 자본주의 사회의 모든 삶의 표현(Lebensäußerungen)에 내재해 있는 것으로서,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제2의 본성’이 된다. 물화된 의식은 주관, 상호주관, 객관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상품형식의 기본 틀에 따라 인식하기 때문에, 상품 관계의 구조 속에서 자본주의 사회의 모든 대상성 형식(Gegenständlichkeitsform) 및 이에 상응하는 주체성 형식(Subjektivitätsform)의 원형이 발견될 수 있다는 것이 루카치의 생각이다.

루카치는 이러한 물화 현상이 발생하는 원인을 도구적 이성 비판에 기초하여 설명한다. 루카치에 따르면 근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보편적으로 관찰되는 ‘정관적 태도’(kontemplative Haltung), 즉 도구적 이성에 기초해 있는 합리적 객관화의 태도가 물화하는 힘으로 작용한다.<sup>12</sup> 근대 이후의 자본주의 사회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생산 과정의 합리화와 기계화, 그리고 그로 인한 노동의 소외라는 현상은 근대 관료제의 문제와 마찬가지로 자본주

10 Lukács (1977), pp. 257-260 참조.

11 Lukács (1977), pp. 275; 이에 대한 호네프의 논의로는 Honneth (2005), pp. 19-20 참조. 또한 하버마스의 3가지 세계의 구분에 대해서는 Habermas (1981), pp. 149 참조.

12 Lukács (1977), pp. 262-267 참조.

의적 주체 태도의 정관적 성격과 긴밀하게 연관되며, 도구적 이성의 관철이라는 공통의 원인으로부터 발생한다는 것이다.<sup>13</sup>

루카치가 물화 개념의 두 가지 계기를 결합하는 방식에는 모순이 있다. 도구적 이성이 물화의 근본 원인이라면 물화 개념을 근대 이후의 자본주의 사회의 상품형식에 대한 분석에 기초하여 정식화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목적의 달성을 위한 효율적인 수단을 선택하는 능력으로서의 도구적 이성은 언어 능력과 마찬가지로 모든 인간에게 기본적으로 귀속되는 것이므로, 그것이 물화의 원인이라면 물화가 반드시 근대 이후의 자본주의 사회에서만 발생한다고 보아야 할 이유는 없기 때문이다.<sup>14</sup> 이 경우 물화는 특정한 역사적, 사회적 현실에 일차적으로 연관되는 개념이 아니라 역사적, 사회적 맥락과 무관하게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철학의 일반 개념에 가까운 것이 된다. 고대 그리스 사회에서도 물화 현상이 발생했다거나, 혹은 물화된 의식구조로부터 근대 비판철학이 성립했다는 등의 루카치의 언급은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sup>15</sup>

따라서 도구적 이성 비판의 계기에 중점을 둘 것이라면 물화를 정치 경제학 비판과 무관한 일반 개념으로 정식화해야 한다. 반대로 정치 경제학 비판의 계기에 중점을 둘 것이라면 인간 일반에게 보편적으로 귀속되는 능력인 도구적 이성을 물화의 원인으로 놓아서는 안 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물화 개념의 두 계기 사이에는 양자택일의 관계가 성립한다.

하지만 루카치는 마르크스보다는 베버에 중점을 두는 방식으로 물화

13 Lukács (1977), pp. 270-271 참조.

14 근대 이후 도구적 이성이 전면화되는 과정은 그 이전과 분명하게 차별화되는 모습을 보인다는 점에서 도구적 이성을 물화의 근본 원인으로 보아야 한다는 반론이 제기될 수 있다. 하지만 그 이전에도 항상 작동해 온 도구적 이성이 근대에 이르러 비로소 사회 합리화 과정을 통해 전면화된 것이라면 도구적 이성 자체보다는 근대 이후 도구적 이성의 전면화를 야기한 것으로 생각되는 자본주의가 물화의 근본 원인으로 간주되는 것이 더 적절해 보인다.

15 Lukács (1977), p. 287 참조.

개념의 두 가지 계기를 애매하게 결합시키는 길을 택한다. 이에 따라 그의 논의에서는 물화의 원인을 다루는 도구적 이성 비판이 중심을 차지하게 되는 반면, 정치 경제학 비판의 분석은 그러한 원인으로부터 발생한 결과를 다룬다는 점에서 그가 의도한 바와는 달리 주변부로 밀려나게 된다. 자본주의는 도구적 이성에 기초한 합리화가 이루어지기 위한 전제조건이며, 또한 그러한 합리화 과정의 산물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물화 현상을 발생시키는 원인은 아니라는 것이 루카치의 생각인 것으로 보인다.<sup>16</sup> 이러한 사고의 단초를 논리적으로 일관되게 전개하면 아도르노와 호르크하이머의 총체화하는 이성 비판에 도달하게 된다.<sup>17</sup> 아도르노와 호르크하이머의 계몽의 변증법은 물화 개념을 일반화함으로써 그것을 도구적 이성의 발현 과정으로서의 인류의 문명사 전체와 연관시킨다.<sup>18</sup> 이 과정에서 물화 개념 안에 포함되어 있었던 정치 경제학 비판의 계기는 약간의 흔적만을 남기고 배면으로 사라지게 된다.

이성 비판에 중점을 두는 이러한 길을 택할 경우 사회 비판은 주체의 능력(Vermögen)에 대한 비판이라는 고전철학적인 에움길을 통해서 비로소 도달되어야 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는 물화에 대한 논의에 쉽게 해결될 수 없는 다음의 이중적인 부담을 지우게 된다. 첫째, 일반적으로 수용될 만한 이성 비판이 제시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성의 개념 자체가 논쟁적이라는 점에서 어떤 최종적인 이성 비판을 제시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므로, 물화에 대한 논의는 철학의 일반 개념에 대한 논의가 그렇듯이 이성의 개념을 둘러싼 끝없는 논쟁을 벗어나기 어렵게 된다. 비판 이론의 1~3세대에 걸친 물화 개념의 재정식화 과정은 도구적 이성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라는 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논쟁의 과정이기도 하다. 둘째, 제시된 이성 비판에

16 Lukács (1977), pp. 262 참조.

17 이 점과 관련해서는 Habermas (1981), p. 490 참조.

18 물화 개념의 이러한 일반화와 관련해서는 J. Horkheimer (1991), "Zur Kritik der instrumentellen Vernunft," *Max Horkheimer Gesammelte Schriften. Band 6*, p. 59 참조.

기초하여 사회 비판으로 나아가야 한다. 기능주의적 이성 비판에 기초하여 체계/생활세계의 2단계 사회 이론을 제시하는 하버마스만이 엄밀한 의미에서 이 요구를 만족시킨다고 할 수 있다. 루카치는 사회 비판과 관련해서는 마르크스와 베버의 분석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아도르노와 호르크하이머는 이성 비판을 총체화하는 방식으로 이 요구를 우회해 버리고, 호네프의 인정망각은 도덕 개념과 유사한 방식으로 이 요구를 피해 나가게 된다.

본 논문은 이성 비판이 발생시키는 이러한 불필요한 부담을 떨쳐 내고 사회 비판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루카치와는 반대로 정치 경제학 비판의 계기를 중심으로 물화 개념을 재정식화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 경우 물화는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철학의 일반 개념이 아니라 근대 이후의 자본주의 사회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병리현상을 가리키는 개념이 된다. 이러한 물화 개념에 기초하여 사회 비판을 전개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자본주의 사회의 ‘경제적인 것’이 발생시키는 병리현상 자체를 내용적으로 심화된 방식으로 파고들어 가는 것이다. 도구적 이성에 기초한 근대 이후의 합리화 과정은 물화의 원인이 아니라 물화를 촉진하거나 심화하는 부수적인 요인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성 비판이라는 예음길을 거치지 않고 사회 비판으로 바로 나아가는 이러한 이해 방식이 물화 비판의 본래의 취지를 되살려 내기에 더 적합할 것으로 보인다.

## 2.2. 물화와 ‘경제적인 것’의 일차적인 연관 관계

도구적 이성 비판의 계기와 결별하고 정치 경제학 비판의 계기를 중심으로 물화 개념을 재정식화한다는 것은 물화 비판의 일차적인 주제 영역을 ‘경제적인 것’으로 한정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화에 대한 그동안의 논의는 도구적 이성에 의해 성립하는 주관-객관의 관계 일반(아도르노, 호르크하이머), 도구적 이성에 의해 주도되는 경제 및 행정 체계에 의한 생활세계의 식민지화(하버마스), 선행하는 인정을 망각한 도구적 이성에 의한 탈인간화

(호네프) 등으로 주제 영역을 포괄적으로 설정해 왔는데, 이는 물화 개념을 이성 비판의 내용적으로 공허한 형식성에 묶어 두는 원인으로 작용해 온 것으로 보인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물화 개념의 본래의 출발점이었던 정치 경제학 비판으로 돌아가서 물화 개념의 주제 영역을 자본주의 사회의 ‘경제적인 것’으로부터 발생하는 병리현상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 자본주의 사회의 모든 대상성 형식 및 그에 상응하는 주체성 형식을 사회 전체의 지배 형식인 상품형식으로부터 찾을 수 있다는 루카치의 통찰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이러한 단초를 새롭게 되살려 내고 발전시킴으로써 내실 있는 사회 비판을 전개할 수 있다는 것이 본 논문의 생각이다.

그런데 물화 개념을 정치 경제학 비판의 계기를 중심으로 재정식화하면서 그것의 주제 영역을 ‘경제적인 것’으로 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음의 두 가지 반론이 제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첫째, 이러한 시도는 시대착오적이다. 비판 이론의 1~3세대에 걸친 물화 개념의 재정식화 과정에서 마르크스의 정치 경제학 비판의 계기가 크게 약화되고 그 대신 베버의 도구적 이성 비판의 계기가 강화된 것에는 이유가 있다. 전자가 이미 그 당시에 시대에 뒤쳐진 낡은 것이 되었기 때문에, 후자가 사회 비판의 새로운 기초로서 도입된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와서 다시 원래의 출발점으로 돌아가서 정치 경제학 비판의 계기를 되살려 내겠다고 하는 것은 시계 바늘을 거꾸로 되돌리려는 것과 마찬가지로 아닐까? 둘째, 이러한 시도는 물화 개념을 불필요하게 내용적으로 빈곤하게 만든다. 이 점과 관련해서는 루카치의 물화 개념에 대한 호네프의 비판을 참조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호네프에 따르면 루카치의 물화 개념은 경제영역을 독단적으로 특권화하기 때문에 오늘날의 관점에서 물화의 훨씬 더 강한 사례로 생각되는 인종차별이나 인신매매 등의 잔인하고 야만적인 탈인간화의 형식들을 간과하게 된다.<sup>19</sup> 호네프의 이러한 비판은 본 논문의 입장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제기될 수

19 Honneth (2005), pp. 95-96 참조.

있을 것이다.<sup>20</sup>

이러한 노선을 따르는 반론은 특히 하버마스의 입장에 기초하여 가장 강력하게 제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버마스에 의한 물화 개념의 재정식화는 사회 비판의 토대로서의 이성 비판이라는 기본 구도로부터 따라 나오는 이론적 요구를 가장 정치하게 만족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아도르노와 호르크하이머 혹은 호네트와는 달리 물화의 주제 영역을 경제와 행정으로 비교적 구체적으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의 의사소통행위이론은 사회 구성의 패러다임을 체계/생활세계 2단계 사회 이론에 기초하여 ‘노동사회’(Arbeitsgesellschaft)에서 ‘소통사회’(Kommunikationsgesellschaft)로 전환함으로써 마르크스의 정치 경제학 비판의 한계를 극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다.<sup>21</sup> 이러한 하버마스의 관점에서 보면 이 논문의 시도는 이미 극복된 이론적 토대로 돌아가려고 한다는 점에서 시대착오적인 것이기도 하고, 그가 물화의 주제 영역으로 설정한 경제와 행정 중 후자를 배제함으로써 물화 비판을 내용적으로 빈약하게 만드는 것이기도 하다.

하지만 하버마스의 생활세계의 식민지화 개념에 대한 그동안의 논의를 검토해보면 오히려 이 논문의 입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들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의 3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경제와 행정을 물화의 주제 영역으로 함께 묶을 수 있으려면 양자에 대한 논의가 어느 정도 균형잡힌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하지만, 하버마스의 생활세계의 식민지화 개념에 대한 논의를 실제로 살펴보면 경제와 연관된 물화를 다루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고, 행정과 연관된 물화를 다루는 경우는 사실상 거의 없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하버마스의 맥

20 이에 대한 필자의 답변은, 물화를 탈인간화의 모든 형식을 포괄하도록 재정식화하는 것은 그것을 유사-도덕 개념으로 만든다는 점에서 사회 비판을 목표로 한다면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정태창(2022), pp. 17-20 참조.

21 이 점과 관련해서는 서도식(2009), 「상호주관적 사물화 비판의 규범적 토대」, 『철학논총』 제56집 제2권, pp. 2-3 참조.

락을 떠나 일반적인 관점에서 보더라도 물화 개념은 ‘경제적인 것’과의 일차적인 연관 관계하에서 상품화 혹은 시장화 등의 문제를 중심으로 이해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는 신자유주의가 통치 이데올로기가 된 오늘날의 맥락에서 ‘경제적인 것’에 의한 병리현상이라는 주제는 여전히 유효성을 갖는 반면 특히 공산주의가 몰락한 이래로 관료제화에 의한 병리현상이라는 주제는 그만큼의 중요성을 갖지 못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동안 도구적 이성 비판에 밀려나 주변화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정치 경제학 비판이 물화 개념과 여전히 긴밀한 연관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물화 개념과 ‘경제적인 것’ 사이의 일차적인 연관 관계를 복원하는 이 논문의 작업은 이 개념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 방식을 충실하게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둘째, 하버마스의 생활세계의 식민지화 개념은 경제 영역과 행정 영역에서 나타나는 서로 다른 소통관계의 왜곡을 기능주의적 이성 비판에 기초하여 하나의 범주로 묶고 있다는 점에서 물화 비판을 내용적으로 공허하게 만드는 측면이 있다. 물화에 대한 논의가 경제와 행정의 두 영역에서 일어나는 소통관계의 왜곡에 공통되는 부분, 즉 체계에 의한 생활세계의 식민지화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서 구체적인 내용을 다루지 못하고 형식적인 차원에 묶여 있게 되는 것이다. 각 영역에서 발생하는 병리현상을 내용적으로 천착하는 작업을 수행할 때 두 영역에 공통되는 형식적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 체계/생활세계 2단계 사회 이론의 논제들은 도움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방해가 되기도 한다.<sup>22</sup> 이는 물화 개념의 적용 범위를 단순히 확

22 예를 들면 하버마스의 생활세계의 식민지화 개념에 따르면 물화는 주관, 상호주관, 객관의 세 영역 중 오직 상호주관의 영역, 그러니까 사람들 사이의 관계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하는데, 이는 이 개념의 적용 범위를 불필요하게 제약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예로는 체계와 생활세계의 실체화(Hypostasierung)에 대한 호네트의 비판을 들 수 있다. 호네트에 따르면 체계와 생활세계의 기능주의적 구분은 규범에서 자유로운 체계와 권력에서 자유로운 생활세계라는 이중의 허구를 발생시키게 된다. 이 점과 관련해서는 Honneth (2005), p. 65 참조.

장한다고 해서 이 개념이 그에 비례하여 내용적으로 풍부해지는 것이 아니라라는 점을 분명하게 보여 준다.

셋째, 하버마스의 생활세계의 식민지화 개념에 기초하여 물화를 다루는 논의는 불가피하게 해당 영역에서 나타나는 병리현상의 실질적인 내용을 다루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된다. 특히 자본주의 사회의 ‘경제적인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가 논의의 핵심을 이룬다.<sup>23</sup> 체계가 생활세계를 식민지화할 때, 즉 체계통합이 사회통합을 ‘부당하게’ 밀어낼 때 물화가 성립한다면, 어디까지가 훼손되지 말아야 할 체계 및 생활세계 각각의 고유 영역이고 어디부터가 그렇지 않은지가 관건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하버마스는 분명한 답변을 제시하지 않는데, 사실 어떤 구체적인 답변을 제시하기에는 물음 자체가 너무 포괄적으로 정식화되어 있기는 하다. 그가 제시하는 것은 자본주의 경제의 체계 명령이 그것의 고유한 작동 영역을 넘어 월권을 행사할 때, 즉 생활세계의 영역으로 침범해 들어올 때 물화가 성립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물화 개념은 논의의 출발점을 이룰 수는 있지만 그로부터 어떤 실질적인 내용을 이끌어 내기에는 지나치게 형식적이고 내용적으로 공허한 것이다. 이 비어 있는 내용을 채우기 위해서는 이 논문에서 제안하는 바와 같이 자본주의 사회의 ‘경제적인 것’이 발생시키는 병리현상 자체를 내용적으로 심화된 방식으로 파고들어 가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

본 논문은 이러한 이유에서 정치 경제학 비판의 계기를 중심으로 물화 개념을 재정식화하고 물화 비판의 일차적인 주제 영역을 ‘경제적인 것’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를 통해 물화 개념이 이성 비판의 공허한 형식성에서 벗어나 근대 이후의 자본주의 사회의 ‘경제적인 것’을 내용적으로 천착함으로써 내실 있는 사회 비판을 전개하는 길이 열리게 될 것이다.<sup>24</sup>

23 이와 관련해서는 강병호(2020), pp. 217-223 참조.

24 여기서 한 가지 밝혀두어야 할 것은 여기서 물화 개념과 ‘경제적인 것’ 사이의 일차적인 연관 관계를 복원한다고 할 때 이는 모든 사회 문제를 ‘경제적인 것’의 문제로 환원하는

### 3. 물화의 정치 경제학 비판의 계기의 재구성

#### 3.1. 물화 개념의 재정식화를 위한 두 가지 논제

물화 개념을 정치 경제학 비판의 계기를 중심으로 재정식화하기 위해서는 마르크스의 정치 경제학 비판을 오늘날의 사회 비판의 조건에 맞게 리부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여기서는 이러한 작업을 위한 이론적 단초를 아도르노와 호르크하이머로부터 가져오고자 한다. 이들은 물화 개념을 도구적 이성 비판의 계기를 중심으로 이해하지만, 당대의 자본주의 사회에 대한 이들의 비판을 재구성하면 이들의 논의가 마르크스의 정치 경제학 비판을 발전적으로 계승하는 지점들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이들은 정신의 물화와 자본주의 사회의 ‘경제적인 것’의 연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오늘날 인간 본성의 타락한 상태(Naturverfallenheit)는 사회적 진보와 분리될 수 없다. 경제적 생산성의 증가는 한편으로는 더 정의로운 세계를 위한 조건들을 만들어 주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기술 장치와 이를 운용하는 사회적 집단으로 하여금 엄청난 우월성을 갖게 하였다. 개인은 경제적 힘 앞에서 완전히 무력화된다. 이러한 힘은 자연에 대한 사회의 폭력을 미증유의 수준까지 밀고 나간다. 개인은 기술 장치들 앞에서 사라질 수밖에 없지만, 그 대가로 이 장치에 의해 과거 어느 때보다도 많은 것을 제공 받는다. 정의롭지 못한 상황에서 대중에게 분배되는 재화의 양이 증가할 수

---

시대착오적인 경제결정론으로의 회귀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 논문은 ‘경제적인 것’과의 연관 하에서 나타나는 물화 현상을 포착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을 뿐, 모든 사회 문제들이 ‘경제적인 것’과의 연관하에서 해명될 수 있다거나 혹은 모든 사회 문제들에 있어 ‘경제적인 것’이 가장 일차적이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주장과는 거리를 두기 때문이다.

록 대중의 무기력과 조종가능성은 커진다. 하류층의 물질적으로는 주목할 만하지만 사회적으로는 보잘것없는 생활수준의 향상은 정신이 빛나는 확산에서 잘 드러난다. 정신의 진정한 관심사는 물화의 부정이다. 정신이 문화 상품으로 고정되고 소비를 목적으로 팔아넘겨지면 정신은 소멸할 수밖에 없다. 상세한 정보와 말끔한 유희의 범람은 인간을 영리하게도 만들지만 동시에 바보로 만든다.<sup>25</sup>

위에 제시된 아도르노와 호르크하이머의 서술은 신자유주의가 통치 이데올로기가 된 오늘날의 자본주의 사회에도 큰 무리 없이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로부터 물화 개념을 정치 경제학 비판의 계기를 중심으로 재정식화하는 작업의 핵심을 이루는 다음의 두 가지 논제를 이끌어 낼 수 있다.

첫째, ‘정신의 물화’라는 표현에 함축되어 있듯이 ‘경제적인 것’의 병리현상으로서의 물화는 주관의 물화를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즉 물화 개념은 자본주의 사회가 개인으로 하여금 특정한 유형의 정체성을 갖도록 유도하는 과정, 혹은 더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자본주의 사회가 특정한 유형의 개인들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주제화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sup>26</sup> 이와 관련하여 아도르노와 호르크하이머는 개인이라는 관념은 환상이라고 지적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자아(das Selbst)의 특수성이란 사회적으로 조건지어진 독점 상품이며, 단지 자연스러운 것으로서 꾸며지고(vorgespiegelt) 있을 뿐이다. … 사회를 지탱시켜 주고 있는 개인(der Einzelne)은 상흔을 지니고 다닌다. 개인은 겉보기에는 자유로운 것 같지만 사회의 경제적, 사회적 장치(Apparatur)의 산물

25 T. Adorno und M. Horkheimer (2012), *Dialektik der Aufklärung*, Fischer, p. 11.

26 이와 관련해서는 M. Foucault (1975), *Surveiller et punir*, Gallimard, p. 34; M. Foucault (1997), *Il faut défendre la société*, Gallimard, p. 26 참조.

(Produkt)이다.<sup>27</sup>

사회가 ‘장치’들을 통해 개인을 항상 의도대로 만들어 낼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 과정에서 개인에게는 불가피하게 ‘상흔’이 남게 될 수밖에 없다.

둘째, 오늘날의 자본주의 사회에서 나타나는 물화를 올바르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자본주의적 생산과 소비의 두 측면에서 발생하는 병리현상을 살펴봐야 한다. 자본주의적 생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마르크스의 정치 경제학 비판을 확장하여 자본주의적 생산과 소비의 두 측면을 포괄하도록 함으로써 그의 생산 패러다임이 갖는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 이 논문의 관점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생산과 소비의 경제적인 힘이 삶을 소외시키는 과정에 관련하여 아도르노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철학자들이 이전에 삶이라고 불렀던 것은 사적인 것의 영역, 단순한 소비의 영역에 속하게 되었다. 이 영역은 물질적 생산의 부속물로서 자율성이나 고유한 실체가 없으며 단지 그와 함께 끌려가고 있을 뿐이다. 직접적인 삶에 대한 진실을 경험하고자 하는 사람은 삶의 소외된 구조와, 개별적인 실존을 가장 내밀한 부분까지 규정하는 객관적인 힘들을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sup>28</sup>

당대의 자본주의 사회에 대한 아도르노와 호르크하이머의 비판에서 이러한 두 가지 논제는 서로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 이들은 자본주의 사회가 특정한 유형의 정체성을 갖는 개인들을 만들어 내는 과정, 즉 ‘정신의 물화’ 과정에서 소비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간파하고, 특히 대중

27 Adorno und Horkheimer (2012), pp. 188-189.

28 Adorno (1980), *Minima Moralia*, Theodor W. Adorno Gesammelte Schriften, Band 4, Suhrkamp, p. 13.

매체에 기반한 문화 상품들의 소비가 개인의 정체성 형성에 대해 갖는 영향력에 주목한다. 이들에 따르면 문화 산업은 자기 보존이라는 목적을 위한 모범으로써 규격화된 행동 양식을 개인에게 주입하는 방식으로 개인을 재생산한다.<sup>29</sup> 문화 산업의 산물들, 예컨대 영화나 방송 프로그램 등은 사회 속에 사는 사람들이라면 아무도 벗어날 수 없는 작용을 가하며, 하자 없는 규격품을 만들 듯이 개인들을 재생산한다는 것이다.<sup>30</sup> 결과적으로 개인들은 모든 관계와 충동들을 포괄하는 총체적인 사회의 매개에 의해 서로 비슷한 존재, 즉 단순한 유적 존재(Gattungswesen)가 된다는 것이 이들의 지적이다.<sup>31</sup>

### 3.2. 물화와 개인의 정체성 형성

‘정신의 물화’, 즉 자본주의 사회가 특정한 유형의 정체성을 갖는 개인들을 만들어 내는 과정으로서의 물화라는 개념은 자본주의 사회의 대상성 형식 및 주체성형식의 원형으로서의 상품형식을 핵심으로 하는 루카치의 물화 개념 안에 함축되어 있는 계기를 발전시킨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는 인간과 역사의 관계에 대한 루카치의 관점을 살펴봄으로써 분명하게 드러난다. 루카치에 따르면 역사는 한편으로는 인간 자신의 활동의 산물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이러한 활동의 형식으로서 인간의 현존재(Dasein)를 형성하는 힘을 갖는 대상성형식을, 즉 인간의 자기 자신/다른 인간/자연에 대한 관계들을 끊임없이 변혁하는 과정이다.<sup>32</sup> 역사는 이러한 의미에서 변증법적 전진 및 후퇴 안에서 더 높은 단계의 진리, 즉 더 높은 단계의 인간의 사회적 자기 인식을 성취하기 위해 끊임없이 행하는 투쟁의 과정이기도 하

29 Adorno und Horkheimer (2012), pp. 43-44 참조.

30 Adorno und Horkheimer (2012), pp. 153-154 참조.

31 Adorno und Horkheimer (2012), p. 54 참조.

32 Lukács (1977), p. 372 참조.

다.<sup>33</sup> 루카치의 이러한 역사관에는 자본주의 사회의 대상성형식이 특정한 유형의 정체성을 갖는 개인들을 만들어 내는 힘을 행사하기 때문에 이를 인식하고 변혁해야만 물화 현상을 극복할 수 있다는 생각이 표현되어 있다.<sup>34</sup>

루카치의 이러한 생각은 마르크스에 연원을 두고 있다. 마르크스에 따르면 인간이란 문자 그대로의 의미에서 폴리틱온 조온(πολιτικὸν ζῶον), 즉 사회적 동물이며, 사회 안에서만 개별화될 수 있는 동물이다.<sup>35</sup> 「포이어바흐에 대한 테제」(1845)에서 마르크스는 이러한 생각을 다음과 같이 표현한다. “인간의 본질은 개별적인 개체에 내재하는 추상물이 아니다. 현실에 있어 그것은 사회적 관계들의 총체(das ensemble)이다.”<sup>36</sup> 즉 개인이란 사회에 의해 그 사회의 지속적 현실로서 생산되는 것이다.<sup>37</sup>

마르크스는 개인에 대한 이러한 관념을 그의 정치 경제학의 생산에 대한 분석과 결합시킴으로써, 생산 혹은 노동이 그에 적합한 특정한 형태의 개인들을 만들어 낸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마르크스에 따르면 생산 방식이란 개인들의 일정한 활동의 방식이고, 삶의 표현 방식이며, 일정한 생활 방식이기 때문에, 그들이 어떻게 존재하는가는 그들이 무엇을 어떻게 생산하는가와 일치한다.<sup>38</sup> 이 과정에서는 사회적인 병리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데, 특히 소외된 노동은 인간을 단순한 ‘노동인간’(Arbeitsmensch)으로, 즉 특정한 노동 혹은 생산 활동에만 특화됨으로써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33 Lukács (1977), pp. 374-375 참조.

34 이와 관련해서는 Lukács (1977), p. 385 참조.

35 K. Marx (1983), *Grundrisse der Kritik der politischen Ökonomie, Karl Marx Friedrich Engels Werke*, Band 42, Dietz Verlag, p. 20 참조.

36 K. Marx (1978a), “Thesen über Feuerbach,” *Karl Marx Friedrich Engels Werke*, Band 3, Dietz Verlag, p. 6.

37 K. Marx (1968), “Ökonomisch-philosophische Manuskripte aus dem Jahre 1844,” *Karl Marx Friedrich Engels Werke*, Band 40, Dietz Verlag, p. 542 참조.

38 K. Marx(1978b), “Die deutsche Ideologie,” *Karl Marx Friedrich Engels Werke*, Band 3, Dietz Verlag, p. 21 참조.

나 비인간화된 존재로 만들어 내게 된다는 것이 마르크스의 지적이다.<sup>39</sup>

오늘날의 자본주의 사회의 관점에서 보면 생산 혹은 노동에 중점을 두는 마르크스의 이러한 개인관은 소비까지 포함하도록 확장될 필요가 있다. 오늘날 개인의 선관(conception of good), 즉 좋은 삶에 대한 관점의 형성 과정, 그리고 개인의 좋은 삶의 영위를 위한 상호주관적 조건들에 대한 논의를 내실 있게 전개하기 위해서는 자본주의적 생산과 소비의 문제를 함께 다루지 않을 수 없다. 이 점은 현대 사회에서 자본주의적 생산과 소비가 개인의 정체성 형성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사실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

주목할 만한 점은 자본주의가 발달함에 따라 개인의 정체성 형성에서 생산보다 소비가 점점 더 중요성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sup>40</sup> ‘나는 누구인가’라는 물음에 대한 답변을 제시하는 데 있어 마르크스가 활동했던 자본주의의 초기 단계에서는 임금 노동이, 즉 내가 무엇을 생산하는지, 어떤 노동을 하는지가 가장 중요했지만, 오늘날 개인의 사회적·문화적 정체성의 형성에 있어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소비 양식, 즉 무엇을 어떻게 소비하는가이다.<sup>41</sup> 바우만에 따르면 오늘날의 사회에서 개인의 자유(individual freedom)란 무엇보다도 소비자의 자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소비할 자유를 의미한다.<sup>42</sup> 개인들은 삶의 다른 영역에서는 제한이나 강제에 직면하게 되는 반면, 시장은 개인에게 완전히 개인적인 선택권 및 그에 대한 사회적 승인을 제공해 준다는 점에서 순수한 개인적 자유의 공간으로 경험된다는 것이다.<sup>43</sup> 욕망의 자유로운 충족으로서의 소비는 생산에는 불

39 K. Marx (1968), pp. 524-525 참조.

40 이와 관련하여 B. C. Han (2016), *Die Austreibung des Anderen*, S. Fischer, p. 31 참조.

41 R. Bocoock (1993), *Consumption*, London: Routledge, pp. 109-110; C. Lodziak (2002), *The Myth of Consumerism*, Pluto Press, pp. 23-24 참조.

42 Z. Bauman (1988), *Freedom*,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p. 7 참조.

43 Z. Bauman (1988), pp. 61-62 참조.

가능한 방식으로 개인의 정체성, 좋은 삶에 대한 관점, 자아 실현의 문제에 대해 심대한 영향을 끼친다. 이와 관련하여 기든스는 현대 사회에서 자아 실현은 일정 부분 늘 새로운 재화의 소비로 대체되기 때문에, 오늘날 자아에 대한 성찰적 기획은 상품화된 영향력에 대한 투쟁을 필연적으로 포함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sup>44</sup>

오늘날 주류를 이루는 자유주의 공공 철학에 따르면 민주주의 사회에서 모든 시민은 자신이 추구할 목적과 가치를 자유롭게 선택하며, 더 나아가 어떠한 삶이 좋은 삶인지를 스스로 판단하고 그것을 추구할 권리를 갖는다.<sup>45</sup> 각인은 좋음(good)의 문제에 관한 불가침의 자기결정권을 갖는 것이다. 이 논문에서 재정식화된 몰화 개념은 이러한 당위적 요구의 심층에서 작동하고 있는 사회적인 힘들에 주목하며, 오늘날의 자본주의 사회가 개인을 어떠한 존재로 만들어 가고자 하는가라는 물음으로부터 시작한다. 개인은 표면적으로는 좋은 삶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자유롭게 선택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자본주의 사회가 생산과 소비 과정을 통해 만들어 내는 개인의 모델에 의해 강하게 규정된다. 이러한 문제 의식을 발전시켜 나가면 좋은 삶의 문제와 ‘경제적인 것’이 갖는 일차적인 연관 관계에 주목하게 되고, 생산-소비라는 상호 연관된 두 가지 경제적인 과정이 개인의 정체성을 근본적인 차원에서 규정하고 있다는 생각에 도달하게 된다.

마르크스는 유물론의 관점에서 생산(Produktion) 혹은 노동(Arbeit)을 인간의 가장 특징적인 활동으로 간주하며, 그의 정치 경제학 또한 이러한 개념들을 중심으로 전개된다는 점에서 생산 혹은 노동 패러다임에 기초해 있다.<sup>46</sup> 마르크스의 생산 패러다임에서 소비는 생산에 속하는 하나의 계기,

44 A. Giddens (1991), *Modernity and Self-Identity*, Polity Press, p. 200 참조.

45 자유주의 공공 철학 및 그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는 정태창(2021), pp. 323-326 참조.

46 “인간이 그들 자신과 동물을 구별짓기 시작한 것은 그들이 삶의 수단을 생산(produzieren) 하면서부터였다. 인간은 삶의 수단을 생산하면서, 그들의 물질적 삶 자체를 간접적으로 생산한다.”[Marx (1978b), p. 21]

혹은 생산의 부수 현상으로만 이해된다.<sup>47</sup> 마르크스에 따르면 생산은 분배, 교환, 소비로 이어지는바, 생산-분배-교환은 사회적 운동인 반면 소비는 개인의 개별적 향유일 뿐이다.<sup>48</sup> 생산은 생산의 대립적인 규정에서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계기(분배, 교환, 소비)도 총괄하며, 이러한 전체 과정은 항상 생산에서부터 새롭게 시작될 수밖에 없다.<sup>49</sup> 다른 곳에서 마르크스는 노동자의 소비를 생산적 소비와 개인적 소비의 두 가지로 구분하는데, 전자는 생산 활동의 유지를 위해 필요한 소비이고 후자는 노동자 개인의 개별적 향유로서, 마르크스에 따르면 자본가는 노동자들의 개인적 소비를 가능한 한 최소화하려고 한다.<sup>50</sup> 마르크스는 노동자를 프롤레타리아트(Proletariat), 즉 무산자(無産者)로 이해하기 때문에 이들의 소비에 최소한의 생존을 위한 향유 이상의 의미를 부여하지 않으며, 그 이상의 소비 행위는 자본가의 전유물로 본다.<sup>51</sup> 18~19세기의 자본주의에 대한 관찰에 기초해 있는 마르크스의 정치 경제학은 시대적 한계로 인해 생산에 중점을 두고 소비에는 거의 주목하지 않았는데, 이는 산업 혁명에 의한 생산력의 증대를 중심으로 하여 빠르게 변화해 가던 당시의 사회상을 반영한 것이기도 하다.<sup>52</sup>

47 아렌트 또한 마르크스의 이러한 관점을 이어받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노동과 소비는 삶의 필연성이 인간에게 부과하는 동일한 과정의 두 단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소비자의 사회에 살고 있다’는] 이 말은 ‘우리가 노동자의 사회에 살고 있다’의 다른 표현이다.” [H. Arendt (1958), *The Human Condition*, 2nd Edition,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p. 126]

48 Marx (1983), p. 24 참조.

49 Marx (1983), p. 34 참조.

50 K. Marx (1962), *Das Kapital: Buch I, Karl Marx Friedrich Engels Werke*, Band 23, Dietz Verlag, pp. 596-598 참조.

51 Marx (1968), p. 548 참조.

52 자본주의와 소비의 관계에 대한 논의로는 W. Sombart (1986), *Liebe, Luxus und Kapitalismus*, Wagenbachs Taschenbücherei; T. Veblen (2007), *The Theory of the Leisure Class*, Oxford University Press 참조.

반면 그로부터 200년 가까이 흐른 오늘날의 자본주의의 핵심에 놓여 있는 것은 생산이 아니라 소비이며, 20세기 이후의 현대 사회는 대규모의 소비가 사회의 기본적인 특징을 이루는 소비 사회다. 바우만에 따르면 이전 형태의 근대 사회는 그 구성원을 일차적으로 생산자로 일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생산자 사회’(producer society)라고 할 수 있는 반면, 오늘날의 후기 근대의 단계에서 사회는 구성원들을 일차적으로 소비자로 만든다는 점에서 ‘소비자 사회’(consumer society)로 규정될 수 있다.<sup>53</sup> 사회 구성원의 대다수가 더 이상 무산자가 아닌, 소비가 보편화되고 대중화된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생산자를 길러내는 것보다 소비자를 길러내는 것이 더 중요성을 갖게 된다는 것이 바우만의 설명이다.

마르크스의 정치 경제학은 18~19세기의 역사적 경험에 기초해 있는 생산 패러다임에 매어 있다는 점에서 현대 사회의 병리 현상을 파악하는 데 있어 한계를 갖게 된다.<sup>54</sup> 하지만 이를 극복하기 위해 물화 개념에 포함 되어 있는 정치 경제학 비판의 계기를 약화시키면서 이 개념과 ‘경제적인 것’ 사이의 일차적인 연관 관계를 제거할 필요는 없다. 이 논문의 선행 논문에서는 물화 개념을 좋은 삶의 형식적 개념을 통해 규범적으로 정초하는 작업을 수행한 바 있다.<sup>55</sup> 이를 본 논문에서 수행하는 물화 개념의 정치 경제학 비판의 계기의 재구성과 결합시키면, 물화를 자본주의적 생산과 소비가 좋은 삶의 영위를 위한 상호주관적 조건들을 훼손함으로써 발생하는 병리 현상으로 재정식화할 수 있다.<sup>56</sup> 이를 통해 물화와 ‘경제적인 것’ 사이의

53 Z. Bauman (2005), *Work, Consumerism and the New Poor*, Open University Press, p. 24 참조.

54 이 점과 관련해서는 Bocock (1993), pp. 35-36; P. Corrigan (1997), *The Sociology of Consumption*, Sage Publications, pp. 1-16 참조.

55 정태창(2022) 참조.

56 좋은 삶의 형식적 개념을 물화 개념의 규범적 기초로 삼기 위해서는 먼저 이 개념이 무엇인지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해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이러한 이론적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좋음의 개념에 대한 상당한 정도의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일차적인 연관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마르크스의 생산 패러다임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 3.3. 소비 사회와 욕구의 체계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소비가 개인의 정체성 형성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과정을 추적해 들어가면 소비주의(consumerism)의 문제를 만나게 된다. 소비주의는 다양한 방식으로 정의될 수 있지만, 가장 포괄적인 의미로는 개인의 다양한 형태의 욕망 충족, 그리고 더 나아가 개인의 행복 추구 및 좋은 삶의 영위를 가능한 한 시장을 통한 상품의 소비라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게 하거나 혹은 그에 의해 중재되도록 하게 하는 사회 경제적 변화의 흐름으로 규정할 수 있다. 소비주의는 자본주의 체계의 내적 논리에 따라 궁극적으로는 개인의 모든 형태의 가치 추구, 좋음(good)에 대한 추구를 시장에 의해 매개되는 상품 소비의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보통 일종의 이데올로기로 간주된다. 그것은 삶의 의미를 상품의 소비를 통해 찾을 수 있다는 이데올로기이기도 하고, 개인의 형질을 소비를 통해 보완하거나 혹은 더 돋보이게 할 수 있다는 이데올로기이기도 하며, 또한 개인의 고유한 정체성을 소비를 통해 라이프스타일(lifestyle)을 구축하는 방식으로 완전히 자유롭게 구현해갈 수 있다는 이데올로기이기도 하다.<sup>57</sup> 소비주의 이데올로기의 이러한 다양한 양태들은 현대 자본주의 사회 안에서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는 마치 물이나 공기와 같이 익숙한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긴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소비주의는 상품 소비를 통해 매개되지 않은 모든 형태의 욕구 충족에 대해 적대적이며,

---

이에 대해서는 이후 별도의 후속 논문을 통해 다루려고 한다.

57 J. Baudrillard (1990), *Le système des objets*, Gallimard, p. 260; Bocoek (1993), p. 50; Lodziak (2002), pp. 51-52; J. Miller (2009), *Spent: Sex, Evolution, and Consumer Behavior*, Viking Press, pp. 84-85 참조.

그것들을 억누르고 제거하는 방향으로 작동한다.<sup>58</sup> 따라서 소비주의가 심화될수록 개인의 행복, 좋은 삶의 추구는 소비와 불가분의 관계를 맺게 되며, 개인은 상품 소비를 제외한 다른 형태의 좋음의 추구를 가능한 한 최소화한 순수한 형태의 소비자가 된다.<sup>59</sup>

보드리야르는 이를 소비 사회에 의한 욕구의 체계의 생산 과정으로 이해한다. 보드리야르에 따르면 현대 자본주의의 근본 문제는 더 이상 생산력과 생산관계 사이의 모순이 아니라, 잠재적으로 무한한 생산력과 소비력 사이의 모순이다.<sup>60</sup> 즉 이제는 생산력 자체를 끌어올리는 것이 아니라 생산된 제품을 원하는 만큼 판매할 수 있도록 소비력을 끌어올리는 것이 자본주의 체계가 원활하게 돌아가기 위한 관건이 된다는 것이다. 18~19세기에는 주로 생산력의 합리화 과정이 전개되었다면 20세기 이후에는 소비력의 합리화 과정이 전개되며, 자본주의 사회는 대중을 생산력으로 사회화했듯이 또한 대중을 소비력으로 사회화해야 했다는 것이 보드리야르의 지적이다.<sup>61</sup> 이러한 소비 사회의 궁극적인 목적은 소비주의와 일치하는바, 그것은 소비자 자신을 완전히 기능화하고 모든 욕구를 심리적으로 독점하는 것이다.<sup>62</sup> 소비 사회에서는 소비에 대한 끊임없는 학습, 소비에 대한 사회적 훈련이 일어나며, 소비는 비록 경험의 양태는 다르더라도 생산과 마찬가지로 사회적 노동이다. 소비 사회는 상품을 생산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상품을 욕구하고 적절하게 소비해 줄 바람직한 소비자 또한 함께 생산한다.

보드리야르에 따르면 소비 사회는 욕구의 체계를 만들어 낸다. 일반적으로는 개인이 어떤 욕구들을 스스로 자연스럽게 갖게 되면 이를 충족시키

58 Z. Bauman (2012), *On Education, Polity*, p. 116 참조.

59 Z. Bauman (2013), *Does the Richness of the Few Benefit Us All?*, Polity Press, p. 60; E. Cabanas & IllouzE. (2018), *Manufacturing Happy Citizens*, Polity Press, pp. 5-6 참조.

60 J. Baudrillard (1970), *La société de consommation*, Denoël, p. 97 참조.

61 Baudrillard (1970), pp. 114-115 참조.

62 J. Baudrillard (1990), p. 258 참조.

기 위해 상품들이 생산되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보드리야르에 따르면 소비 사회에서 욕구란 반대로 자본주의 체계의 내적 논리에 의해 개인들 속으로 유도된 기능을 의미한다.<sup>63</sup> 즉 자본주의 체계가 그것이 필요로 하는 욕구의 체계를 개인들에게 학습시키기 때문에 욕구가 성립한다는 것이다. 보드리야르는 개인의 가치관 전체가 소비 사회의 강요에 짓눌려 있기 때문에 어디에서도 인간은 자신의 고유한 욕구를 마주할 수 없으며, 심지어는 생체 기능과 관련된 욕구조차도 직접적으로 체계의 ‘합수’라고 주장한다.<sup>64</sup>

욕구의 체계에 대한 보드리야르의 주장은 개인이 갖는 욕구의 진정성(authenticity)이라는 문제를 제기한다. 나의 욕구가 자연스럽게 생성된 욕구인지, 아니면 자본주의 체계에 의해 학습되고 강제된 욕구인지가 불분명한 것이다. 감정 상품(emodity)에 대한 일루즈의 논의는 이와 관련하여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해 준다. 일루즈에 따르면 소비는 섹슈얼리티를 통해 개인의 정체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소비자 행위와 감정 생활을 서로 분리불가능한 방식으로 연관시킴으로써 감정과 상품을 공생산(co-production)한다.<sup>65</sup> 그 결과 개인은 섹슈얼리티와 관련하여 경험하게 되는 감정들이 과연 자연스럽게 생성된 자신의 감정인지, 아니면 자본주의 체계에 의한 감정 상품의 생산 과정에서 유도된 감정인지를 구분하기 어렵게 된다는 것이 일루즈의 설명이다.

63 J. Baudrillard (1976), “La genèse idéologique des besoins,” *Pour une critique de l'économie politique du signe*, Gallimard, p. 87 참조.

64 Baudrillard (1976), p. 92 참조.

65 E. Illouz (1997), *Consuming the Romantic Utopi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pp. 6-7 참조.

## 4. 재정식화된 물화 개념의 개요

선행 논문과 본 논문의 작업을 종합하면 물화를 자본주의 사회의 생산과 소비의 두 측면에서 나타나는 병리 현상, 즉 개인이 좋은 삶을 개인이 좋은 삶을 영위하기 위한 상호주관적 조건의 훼손 일반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재정식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된다. 이렇게 재정식화된 물화 개념은 1) '객관' 및 '상호주관'의 물화, 2) '주관'의 물화의 두 가지 측면을 갖는데, 이는 주관, 상호주관, 객관의 3가지 차원에서 성립하는 루카치의 물화 개념을 계승하여 재해석한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 4.1. '객관' 및 '상호주관'의 물화

이 논문에서 재정식화된 물화는 루카치의 물화와 마찬가지로 주관-상호주관-객관의 전 영역에 대해 성립한다. 이때 '주관'의 물화란 욕구와 행위의 주체로서의 개인의 정체성의 물화, 즉 아도르노와 호르크하이머의 용어로 표현하면 '영혼' 혹은 '정신'의 물화를 의미하며, '상호주관'의 물화란 그러한 개인들 사이의 사회 관계의 물화를, 그리고 '객관'의 물화란 개인이 욕구하는 대상들의 물화를 가리킨다. 이러한 3가지 물화를 관통하는 핵심적인 생각은 자본주의 체계가 개인의 욕구 충족을 위한 모든 대상들을 상품화하려는 강한 경향을 가질 뿐만 아니라, 또한 그러한 상품들을 체계의 필요에 따라 순응적으로 생산하고 소비하게 될 정체성을 갖는 개인을 함께 만들어 낸다는 것이다. 물화의 이러한 두 가지 측면은 서로를 강화하는 관계에 있다. 사회가 상품을 소비하지 않으면 개인의 욕구 충족이 불가능해지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해 개인이 사회 안에서 상품을 소비하지 않고 삶의 만족을 느낄 수 있는 영역들이 점점 더 축소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 생산과 소비에 종속되는 것이기도 하고, 사회 안에 생산과 소비에 종속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모든 욕구의 대상에 대한 상

품화가 쉽게 진행될 수 있는 것이기도 하다. 물화가 심화될수록 사회는 아도르노와 호르크하이머가 말하는 ‘관리되는 세계’(Verwaltete Welt)에 가까운 것이 된다. 아도르노와 호르크하이머는 후기 자본주의 사회에서 개인이 경제적인 힘들에 의해 완전히 무력화되는 과정, 생산과 소비의 전 과정이 개인을 완전히 길들이는 과정에 주목한 바 있다. 이들이 말하는 ‘관리되는 세계’란 경제적 과정들의 내적 논리가 사회의 모든 것을 절대적으로 관리하고 자동화함으로써 개인의 자유가 심각하게 훼손되어 있는 사회로서, 이러한 사회에서 삶은 물질적 생산 과정의 부속물에 불과한 단순한 소비의 영역이 되어 버린다.

‘객관’ 혹은 ‘상호주관’의 물화는 이 두 가지 영역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상품화, 시장화, 경제적인 코드화가 개인이 좋은 삶을 영위하기 위한 상호주관적 조건을 훼손함으로써 사회적인 병리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경우 성립한다. ‘객관’ 혹은 ‘상호주관’의 영역에서 물화하는 힘은 다음의 두 가지 방식으로 작용한다. 하나는 개인의 욕구 충족을 위한 모든 대상을 상품화함으로써 ‘욕구의 체계’ 전체를 최대한 시장의 통제하에 두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개인의 욕구 충족의 대상들 중 상품화될 수 없는 것들을 최대한 제거하고 억압하고 소외시키는 것이다.<sup>66</sup> 물화의 이러한 두 가지 방식은 모두 사회적인 병리 현상을 낳게 되는데, 이를 잘 보여 주는 것이 친밀성(intimacy)의 물화 과정이다. 친밀성은 사회 관계의 개인적 계기의 측면에서 ‘인간들 간의 높은 수준의 상호 침투’<sup>67</sup>를 의미하는 개념으로서, 친밀 관계는 개인이 좋은 삶을 영위하고 행복을 누리는 데 있어 핵심을 이루는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친밀 관계는 경제적인 코드화만 가능하고 상품화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친밀성 영역에서 물화는 한편으로는 개인들로 하여금 상품 소비를 의외움과 고립에 대한 치유책으로 선택하게 하는 방식으로, 다른 한

66 이와 관련해서는 Bauman (2012), p. 116 참조.

67 N. Luhmann (1994), *Liebe als Passion*, Suhrkamp, p. 200 참조.

편으로는 시장화의 과정에서 친밀 관계들 자체를 점차 약화시키고 해체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sup>68</sup> 이와 관련하여 아도르노는 오늘날의 사회에서는 삶이 생산 과정에 종속됨에 따라 모든 사람들은 고독과 고립에 굴복하도록 강요받으며, 그것을 스스로 선택한 최선의 결정으로 간주하도록 유혹 받는다고 지적한 바 있다.<sup>69</sup>

이 논문에서 재정식화된 물화는 좋은 삶의 형식적 개념에 기초해 있기 때문에, 사회적인 병리 현상의 발생 여부와 관련하여 일정 부분 좋음(good)의 문제에 대한 가치 판단이 개입하게 된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상품의 생산 및 소비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회적인 병리 현상들은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에 기초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권리 침해, 공정성(fairness)의 훼손, 효용의 극대화와 같은 자유주의적 정의관의 기준들에 의해서는 파악될 수 없다.<sup>70</sup> 이러한 병리 현상들은 옳음(right)이 아니라 좋음(good)의 관점에서 판단되어야 한다. 물화가 잘못된 것은 그것이 좋은 삶의 영위를 위한 상호주관적 조건들을 훼손함으로써 바람직하지 못한 사회로 나아가게 하기 때문인데, 이에 대한 판단은 바람직한 사회가 무엇인지에 대한 가치 판단에 기초해 있을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하여 상품화에 의해 발생하는 병리 현상에 대한 샌델의 논의를 참고해 볼 만하다. 샌델에 따르면 현대 사회는 모든 것을 사고팔 수 있는 사회, 시장 가치가 인간 활동의 모든 영역에 스며들어 간 사회인 시장 사회(market society)로 변모해왔다. 샌델은 시장 사회에서 재화(goods)가 상품화되거나 혹은 사회적 실천(practice)이 시장화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병리 현상으로 다음의 두 가지를 든다.<sup>71</sup> 하나는 불평등(inequality)으로서, 사회 안에 모든 좋은 것들이 돈에 의해 좌우되는 사회가 됨으로써 좋은 삶의

68 Z. Bauman (2003), *Liquid Love*, Polity, pp. 69-75 참조.

69 Adorno (1980), p. 28 참조.

70 이와 관련해서는 정태창(2022), pp. 25-27 참조.

71 M. Sandel (2013), *What Money Can't Buy*, Penguin, pp. 8-11 참조.

영위가 점점 더 부의 소유 여부에 강하게 종속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부패(corruption), 즉 삶 속에서 나타나는 좋은 것들이 상품화에 의해 변질되거나 저평가되는 것이다. 샌델에 따르면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최종적인 평가는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함께 살아가고자 하는지, 즉 다시 말해 모든 것이 사고 팔리는 사회 안에 살고 싶은지, 아니면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치들을 존중하는 사회 안에서 살고 싶은지의 여부에 달려 있다.<sup>72</sup>

#### 4.2. '주관'의 물화

그동안 물화는 주로 개인들 사이의 사회 관계의 물화로 이해되어 왔는데,<sup>73</sup> 물화에 대한 이러한 이해 방식은 물화 과정과 무관하게 자신의 고유한 정체성을 갖는 개인들이 먼저 존재하고, 이러한 개인들 사이의 사회 관계가 비로소 물화된다는 생각을 암암리에 전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이 논문에서는 자본주의 사회가 특정한 형태의 개인, 특정한 형태의 정체성을 만들어 내는 과정 자체를 물화의 일부분으로 간주하며, 이러한 정체성을 '자본주의적 인격성'(capitalist personality)이라고 명명하고자 한다.<sup>74</sup>

자본주의 사회는 무엇보다도 개인을 특정한 형태의 생산자, 그리고 소비자로 만들어 낸다. 생산과 소비는 인간이 살아가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활동이기도 하므로, 자본주의 사회 안에서 개인들이 그에 고유한 방식으로 생산 및 소비를 하게 된다는 사실 자체를 문제시할 수는 없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생산 및 소비와 관련된 병리 현상으로서의 물화가 분명하게 가시화되

72 Sandel (2013), p. 166 참조.

73 다소 단순화한다면 하버마스에 물화는 소통 관계의 물화이며, 호네테에게 물화는 인정 관계의 물화이다. 루카치 또한 물화를 "개인들 간의 관계가 사물성을 갖는다는 사실"[(Lukács (1977), p. 257]과 일차적으로 연관시키고 있다.

74 '자본주의적 인격성'(capitalist personality)이라는 표현은 스웨이드로부터 빌려 온 것이다. 이 개념과 관련해서는 C. Swader (2013), *The Capitalist Personality*, Routledge, pp. 4-5 참조.

[표 1] 생산과 소비의 내적 논리 비교

	생산	소비
핵심 개념	규율	욕망
기본 태도	해야 한다/할 수 있다	하고 싶다
사회 유형	규율사회/성과사회	소비사회
핵심 원리	이성	감성
연관 사조	계몽주의	낭만주의

는 것은 그것이 고유한 내적 논리에 따라 개인을 점점 더 순수한 형태의 생산자 및 소비자로 만들어 가려고 함으로써 개인이 좋은 삶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상호주관적 조건들을 직접적으로 훼손할 경우이다. 이때 생산과 소비의 내적 논리는 서로 분명하게 구분되는 특징들을 갖는데, 이 설명을 단순화하여 비교하면 [표 1]과 같다.

자본주의적 생산의 핵심을 이루는 원리는 규율(discipline)이다. 베버는 종교적 기원을 갖는 금욕(Askese)의 원리가 직업 생활로 옮겨지고 세속의 윤리가 됨으로써 그가 ‘강철같이 단단한 우리’(ein stahlhartes Gehäuse)에 비유한 자본주의적 경제 질서를 구축하는 데 일조하는 과정을 설득력 있게 보여 준 바 있다.<sup>75</sup> 푸코가 말하는 규율 또한 이와 같은 맥락에 있는 것으로서, 규율 권력의 궁극적인 목표는 사회가 원하는 형태의 인격성을 갖는 개인들을 만들어 냄으로써 사회 전체의 생산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생산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개인은 계산가능성에 기초해 있는 도구적 합리성을 체화할 것을 요구받게 된다.<sup>76</sup> 한병철에 따르면 오늘날의 사회는 규율을 ‘해야 한다’(sollen)의 형태로 외부에서 강제하는 규율 사회(Disziplinargesellschaft)

75 M. Weber (1920), “Die protestantische Ethik und der Geist des Kapitalismus,” *Gesammelte Aufsätze zur Religionssoziologie*, Band I, Mohr Siebeck, pp. 203-204 참조.

76 아도르노와 호르크하이머에 따르면 이것이 계몽(Aufklärung)이 갖는 유일한 목적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Adorno und Horkheimer (2012), p. 16 참조.

가 아니고, 규율을 ‘할 수 있다’(können)의 형태로 스스로 내면화하게 하는 성과 사회(Leistungsgesellschaft)로 이행했는데, 사회의 이러한 패러다임 전환은 생산의 극대화라는 목표를 갖는다는 점에서는 연속성을 유지한다.<sup>77</sup> 자본주의적 생산의 측면에서 발생하는 대표적인 병리 현상은 외적 혹은 내적 강제에 의해 점점 더 순수한 형태의 ‘생산자’가 되어 생산을 위한 수단이나 도구로 전락하는 개인의 자기 소외이다.<sup>78</sup>

자본주의적 소비의 핵심을 이루는 원리는 욕구(desire)이다. 생산은 외적 강제 혹은 내적 강제를 수반하는 반면 소비에는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어떠한 강제도 없으며, ‘해야 한다’(sollen)가 아니라 ‘하고 싶다’(wollen)가 소비자의 기본 태도를 이룬다. 소비 활동에서는 계산가능성에 기초한 도구적 합리성이 반드시 요구되지는 않으며, 무엇을 어떻게 원하는 소비자가 자신의 욕구를 시장에서 구매 가능한 상품이라는 형식을 통해 충족시키기만 하면 된다. 모종의 제한이나 강제를 불가피하게 수반할 수밖에 없는 삶의 다른 영역과는 달리, 소비는 개인에게 완전한 선택권과 함께 그에 대한 사회적 승인을 제공해 준다는 점에서 완전한 자유의 영역으로 간주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자본주의 사회에서 소비자의 욕망은 미리 결정되고 끊임없이 관리되며 재생산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이때의 자유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좀 더 심도 있게 분석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sup>79</sup> 자본주의 사회는 개인을 그에 고유한 형태의 소비자, 즉 끊임없이 새로운 유희에 노출되어 늘 뭔가를 욕망하는 불만의 상태에 있으며, 판에 박힌 행동을 하지 않고 끊임없이 새로운 선택을 내리는 소비자로 만들어 내는바, 이러한 내면화된 강제는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의 결과처럼 모습을 드러낸다.<sup>80</sup> 자본주의적

77 HanB. C. Han (2011), *Müdigkeitsgesellschaft*, Matthes & Seitz Berlin, pp. 17-19 참조.

78 이와 관련된 논의로는 Marx (1968), p. 514; Lukács (1977), p. 275; Han (2011), p. 61; Adorno und Horkheimer (2012), p. 45-46 참조.

79 이와 관련해서는 Adorno und Horkheimer (2012), p. 175 참조.

80 Bauman (2005), pp. 25-26 참조. 또한 이러한 자본주의적 소비자의 형성 과정을 낭만

소비의 측면에서 발생하는 대표적인 병리 현상은 다음의 두 가지이다. 하나는 욕구 충족의 모든 대상이 상품이 되는 것, 즉 인간의 욕망을 충족시킬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상품화됨으로써 시장에서 구매 가능한 상품이라는 형식을 통하지 않고 충족시킬 수 있는 욕망의 영역이 점점 더 축소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사회적 병리 현상을 수반하지 않고는 상품화될 수 없는 것들 또한 상품화의 과정을 겪게 된다. 다른 하나는 이러한 상품화에 상응하는 것으로서, 순수한 형태의 ‘소비자’가 된 개인, 즉 소비를 좋은 삶과 행복에 이르기 위한 유일한 수단으로 간주하면서 그에 과도하게 몰두하는 개인의 자기 소외다.<sup>81</sup>

자본주의적 인격성은 이러한 순수한 형태의 생산자 및 소비자의 두 가지 측면으로 구성되며, 자본주의 사회는 개인들을 이러한 인격성을 갖는 존재로 만들어 내리는 강한 경향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자본주의적 생산과 소비 중 개인의 정체성 형성에 더 넓고 더 깊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후자인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먼저 노동은 일정 수준 이상의 자격 조건을 요구하기 때문에 사회의 구성원들 중 생산에 종사하는 사람은 일부이며, 그 중에서도 다시 일부만이 순수한 형태의 생산자 방식으로 피로 사회의 자기 착취를 하게 된다.<sup>82</sup> 반면 소비에는 금전의 유무를 제외하면 자격 조건이라는 측면에서는 특별한 진입 장벽이 없기 때문에 언어 및 행위 능력을 갖는 주체라면 누구나 시장에서 구매 가능한 상품이라는 형식을 통해 소비를 하고, 또한 순수한 형태의 소비자가 되거나 혹은 적어도 그렇게 되는 것을 지향할 수 있다. 생산을 하지 않는 사람은 많지만 소비를 하지 않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자본주의적 소비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

---

주의와의 관련하여서 분석한 연구로는 C. Campbell (2018), *The Romantic Ethic and the Spirit of Modern Consumerism*, Palgrave, 131-151 참조.

81 이와 관련해서는 Bauman (2013), 60 참조.

82 피로사회의 성과 주체에서 자유와 강제, 그리고 착취자와 피착취자가 일치하게 되는 자기 착취의 개념에 대해서는 Han (2011), pp. 22-23 참조.

하게 된다. 또한 생산을 위한 노동은 규율과 강제를 수반하기 때문에 고되고 힘들 수밖에 없는 반면, 소비는 기본적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충족시키는 과정이므로 즐겁고 안락하다.<sup>83</sup> 생산이 수반하는 규율과 강제를 내면화하여 자신의 정체성의 구성 요소로 삼는 사람은 일부이며, 많은 경우 노동자는 “노동의 외부에서 비로소 자기 곁에 있다고 느끼고, 노동 안에서는 자기 바깥에 있다고 느끼게”<sup>84</sup> 된다. 반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소비자의 욕망을 결정하고 관리하며 재생산하는 과정은 사람들로 하여금 무엇인가를 원하게 하는 것, 그리고 그러한 원함을 다름 아닌 자신의 자유로운 선택의 결과로 느끼게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sup>85</sup>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그리고 나는 무엇을 어떻게 소비하고자 하는가는 나의 정체성의 중요한 부분을 이루며, 경우에 따라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을 이루기도 한다. 소비는 이러한 방식으로 소비자로서의 개인들의 정체성의 핵심까지 별다른 저항 없이 도달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개인들의 좋은 삶과 행복에 대한 관점의 형성에 심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다.<sup>86</sup>

## 5. 나가는 말

본 논문은 물화 개념과 ‘경제적인 것’ 사이의 일차적인 연관 관계를 복

83 이 점과 관련해서는 B. C. Han (2014), *Psychopolitik*, S. Fischer, p. 27; Han (2011), p. 18 참조.

84 Marx (1968), p. 514.

85 Bauman (2005), p. 40 참조.

86 이러한 의미에서 한병철이 그의 『심리정치』(*Psychopolitik*)에서 모토로 삼고 있는 현대 미술가 제니 홀저(Jenny Holzer)의 ‘내가 원하는 것에서 나를 지켜줘’(Protect me from what I want)라는 문장은 오늘날의 자본주의 사회에서 개인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종류의 투쟁의 핵심을 포착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Han (2014), p. 28 참조.

원함으로써 근대 이후의 자본주의 사회의 병리현상에 대한 비판이라는 본래의 취지를 되살려 내는 것을 목표로 삼았으며, 다음과 같이 전개되었다. 2장에서는 물화 개념의 주제 영역을 ‘경제적인 것’으로 한정하고, 이에 대한 예상되는 반론을 검토하였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루카치의 물화 개념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안적 해석을 제시하였으며, 하버마스의 관점에서 이러한 해석에 대한 반론을 구성하고 그에 대한 답변을 제시하였다. 3장에서는 물화 개념의 정치 경제학 비판의 계기를 재구성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아도르노와 호르크하이머의 당대 자본주의 사회에 대한 비판으로부터 이러한 재구성을 위한 두 가지 논제를 이끌어 냈으며, 이에 따라 정치 경제학 비판의 생산 패러다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문제 영역을 자본주의적 생산과 소비로 확장하였으며, ‘정신의 물화’ 관념에 대한 재해석을 통해 자본주의적 생산과 소비가 특정한 유형의 정체성을 갖는 개인을 만들어 낸다는 생각에 도달하였다. 4장에서는 재정식화된 물화의 개요를 ‘객관’ 및 ‘상호주관’의 물화, 그리고 ‘주관’의 물화의 두 가지 측면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여기서 핵심을 이루는 생각은 자본주의 체계가 개인의 욕구 충족의 모든 대상을 상품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뿐만 아니라, 그러한 상품들을 체계가 원하는 방식으로 생산 및 소비하는 순응적인 정체성을 갖는 개인들 또한 생산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이루어진 물화의 재정식화는 사회적인 병리 현상으로서의 물화의 다양한 유형들에 대한 논의를 전개하기 위한 예비 작업의 성격을 갖는다. 재정식화된 물화 개념이 갖는 생산성 및 비판적 잠재력은 그와 관련된 사회적인 병리 현상들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전개하는 과정에서 비로소 유의미하게 입증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강병호(2021), 「하버마스: 기능주의적 이성 비판과 의사소통적 이성 옹호」, 철학아카데미, 『이성과 반이성의 계보학』, 동녘, pp. 176-192.
- 강병호(2020), 「생활세계와 체계: 하버마스의 이단계 사회이론과 그에 대한 비판에 대한 재고찰」, 『철학』 제144집, pp. 203-227.
- 문성훈(2007), 「물화(Verdinglichung)와 인정 망각」, 『해석학연구』 제20권, pp. 279-316.
- 서도식(2010), 「사물화 비판의 두 모델: 인지 모델과 인정 모델」, 『시대와철학』 제21권 제2호, pp. 201-232.
- 서도식(2009), 「상호주관적 사물화 비판의 규범적 토대」, 『철학논총』 제56집 제2권, pp. 1-26.
- 정태창(2022), 「좋은 삶의 형식적 개념에 기초한 '물화(Verdinglichung)'의 재정식화」, 『철학사상』, 제85권, pp. 3-33.
- 정태창(2021), 「공화주의의 공공 철학과 좋은 삶」, 『철학논총』 제105집 제3권, pp. 319-348.
- 정태창(2013), 「아도르노 철학에서의 이성의 파괴」, 『철학사상』 제40권, pp. 167-205.
- Adorno, T.(1980), *Minima Moralia, Theodor W. Adorno Gesammelte Schriften*, Band 4, Suhrkamp.
- Adorno, T. und M. Horkheimer (2012), *Dialektik der Aufklärung*, Fischer.
- Arendt, H. (1958), *The Human Condition*, 2nd Edition,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Baudrillard, J. (1990), *Le système des objets*, Gallimard.
- Baudrillard, J. (1976), "La genèse idéologique des besoins," *Pour une critique de l'économie politique du signe*, Gallimard, pp. 59-94.
- Baudrillard, J. (1970), *La société de consommation*, Denoël.
- Bauman, Z. (2013), *Does the Richness of the Few Benefit Us All?*, Polity Press.
- Bauman, Z. (2012), *On Education*, Polity.
- Bauman, Z. (2005), *Work, Consumerism and the New Poor*, Open University Press.
- Bauman, Z. (2003), *Liquid Love*, Polity.
- Bauman, Z. (1988), *Freedom*,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 Bocock, R. (1993), *Consumption*, London: Routledge.
- Campbell, C. (2018), *The Romantic Ethic and the Spirit of Modern Consumerism*, Palgrave.
- Cabanas, E. and Illouz, E. (2018), *Manufacturing Happy Citizens*, Polity Press.
- Corrigan, P. (1997), *The Sociology of Consumption*, Sage Publications.
- Foucault, M. (1997), *Il faut défendre la société*, Gallimard.
- Foucault, M. (1975), *Surveiller et punir*, Gallimard.
- Giddens, A. (1991), *Modernity and Self-Identity*, Polity Press.
- Habermas, J. (1986), *Der philosophische Diskurs der Moderne*, Suhrkamp.

- Habermas, J. (1981), *Theorie des kommunikativen Handelns, Band 2*, Suhrkamp.
- Han, B. C. (2016), *Die Austreibung des Anderen*, S. Fischer.
- Han, B. C. (2014), *Psychopolitik*, S. Fischer.
- Han, B. C. (2011), *Müdigkeitsgesellschaft*, Matthes & Seitz Berlin.
- Han, B. C. (2005), *Was Ist Macht?*, Reclam.
- Honneth, A. (2005), *Verdinglichung*, Suhrkamp.
- Horkheimer, M. (1991), "Zur Kritik der instrumentellen Vernunft," *Max Horkheimer Gesammelte Schriften. Band 6*, pp. 20-188.
- Horkheimer, M. (1985), "Verwaltete Welt," *Max Horkheimer Gesammelte Schriften. Band 7*, pp. 363-384.
- Illouz, E.(2018), "Introduction: Emodities of the Making of Emotional Commodities", in: E. Illouz (ed.), *Emotions as Commodities*, Routledge, pp. 1-30.
- Illouz, E.(2012), *Why Love Hurts*, Polity.
- Illouz, E. (1997), *Consuming the Romantic Utopi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Jaeggi, R. (2014), *Kritik von Lebensformen*, Suhrkamp.
- Jaeggi, R. & R. Celikates (2017), *Sozialphilosophie*, C. H. Beck.
- Lodziak, C. (2002), *The Myth of Consumerism*, Pluto Press.
- Lukács, G. (1977), *Geschichte und Klassenbewußtsein*, Luchterhand.
- Luhmann, N. (1994), *Liebe als Passion*, Suhrkamp.
- Marx, K. (1983), *Grundrisse der Kritik der politischen Ökonomie, Karl Marx Friedrich Engels Werke*, Band 42, Dietz Verlag.
- Marx, K. (1978a), "Thesen über Feuerbach," *Karl Marx Friedrich Engels Werke*, Band 3, Dietz Verlag, pp. 5-8.
- Marx, K. (1978b), "Die deutsche Ideologie," *Karl Marx Friedrich Engels Werke*, Band 3, Dietz Verlag, pp. 9-521.
- Marx, K. (1968), "Ökonomisch-philosophische Manuskripte aus dem Jahre 1844", *Karl Marx Friedrich Engels Werke*, Band 40, Dietz Verlag, pp. 465-568.
- Marx, K. (1962), *Das Kapital: Buch I*, *Karl Marx Friedrich Engels Werke*, Band 23, Dietz Verlag.
- Miller, J. (2009), *Spent: Sex, Evolution, and Consumer Behavior*, Viking Press.
- Sandel, M. (2013), *What Money Can't Buy*, Penguin.
- Stahl, T. (2011), "Verdinglichung als Pathologie zweiter Ordnung," *Deutsche Zeitschrift für Philosophie*, Vol. 59 No. 5, pp. 731-746.
- Swader, C. (2013), *The Capitalist Personality*, Routledge.
- Sombart, W. (1986), *Liebe, Luxus und Kapitalismus*, Wagenbachs Taschenbücherei.
- Quadflieg, D. (2019), *Vom Geist der Sache*, Campus Verlag.
- Quadflieg, D. (2011), "Zur Dialektik von Verdinglichung und Freiheit," *Deutsche Zeitschrift für Philosophie* Vol. 59 No. 5, pp. 701-715.

Veblen, T. (2007), *The Theory of the Leisure Class*, Oxford University Press.

Weber, M. (1920), "Die protestantische Ethik und der Geist des Kapitalismus,"  
*Gesammelte Aufsätze zur Religionssoziologie*, Band I, Mohr Siebeck, pp. 17-206.

원고 접수일: 2022년 10월 7일, 심사 완료일: 2022년 11월 13일, 게재 확정일: 2022년 11월 14일

## ABSTRACT

# Reification as a Pathology of Capitalistic Production and Consumption

Jung, Taechang\*

Reification has been understood in the tradition of German social philosophy as a concept that captures the core of the pathologies characteristically appearing in the post-modern capitalist society. However, as the reformulations of reification centered on the moments of critique of instrumental reason, the primary goal of critique of reification, i. e. critique of the pathologies of capitalist society, seems to have faded. This paper reformulates the concept of reification on a new basis, separate from the critique of instrumental reason. The goal of this paper is to revigorate the primary goal of critique of reification, i. e. critique of the pathologies of capitalist society, by restor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oncept of reification and 'the economical'. This work is carried out in a way that inherits Marx's critique of political economy and expands it to meet the contemporary prerequisites of social criticism, defining the subject area of critique of reification to pathologies arising from capitalistic production and consumption.

**Keywords** Reification, Instrumental Reason, Critique of Political Economy, Personal Identity

---

\* Assistant Professor, Division of Liberal Arts, Kongju National University